

Korea Wine Challenge

한국 와인 시장에서 오래 기억될 수입·유통사들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지난해 6월에 있었던 제16회 KWC에 자신들이 수입하는 와인을 참가시키거나 아니면 수입선에 대해 이 컴피티션에 적극 참여를 유도해준 수입 유통사의 면면을 정리한다. 글 최훈 본지 발행인 사진 장영수, 각 와인너리, Wikipedia



● 금양인터내셔널 대표 조상덕

1989년 창업. 우리나라 와인 시장에서 브랜드 파워를 평가한다면 아마도 최상위의 자리에 들만 한 회사이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있던 직후 정부의 와인 수입 자유화 시책에 곧바로 참여해 성공한 수입사의 하나이다. 당시 출발선을 함께 나선 와인 수입사 가운데 많은 회사가 사라졌거나 아니면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 금양인터내셔널은 지속적인 성장 패턴을 보이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320여 명의 직원이 시장을 누비면서 회사의 동력을 충전한 데 그 연유가 있는 듯하다. KWC에도 거래선인 생산자들이 꾸준히 참가해주어 Great Contributor에 리스트업 되고있다.

오랜 회사의 연혁에 버금가듯 화려한 포트폴리오를 자랑하고 있다.

- 칠레의 산 페드로의 '1865'
- 독일 라인강가의 'Schloss Vollrads'
- 호주의 전설적 와인너리 'Penfolds'
- 샹파뉴의 명가 'Pol Roger'
- 론 강가의 'M. Chapatier'
- 이탈리아 뿌리아의 'San Marzano' 등

● 레뱅드매일 대표 유지찬

2001년 12월 3일, 찬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레뱅드매일이 출범하는 날, 본지의 관계자들이 축하차 들른 일이 기억난다. 특별히 이 수입사에 관심이 많았던 것은 당시 우유업계에서 굴지의 입지를 보이던 모회사, 그리고 와인의 좋은 파트너가 되는 '상하 치즈'를 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레뱅드매일은 현재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지니고 와인 업계에서 부동의 입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여느 수입사와는 달리 매우 공격적인 경영 패턴을 보이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보인다. Deutz는 2년 연속 최상위의 메달을 거머쥐었다. KWC와도 깊은 인연을 보인다. 해마다 KWC에 이바지하는 Great Contributor 리스트에 올라 있다.

이름난 브랜드 그리고 알찬 포트폴리오를 보이고 있다.

- 프랑스 론의 'Delas', 샹파뉴의 'Deutz'
- 이탈리아 마르케의 'Umani Ronchi', 베로나의 'Masi'
- 칠레의 'Yali', 남아공의 'The Grape Grinder'
- 미국의 'Delicato', 'Clos du Val'
- 호주의 'Rosemount'
- 스페인 리오하 알타 'Muga' 등

● 비노킴즈 대표 김성중

2007년 우리나라에 그리 많지 않은 와인 카너서 가운데 한 분인 김성중 회장이 창업한 회사이다. 2000년 초 와인 열풍이 일기 시작할 무렵 보르도 와인 아카데미 리더스 코스 제1기생으로 참여할 만큼 와인에 대해 뜨거운 열정을 지닌 분이다. 또한 한국 와인 소믈리에 협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회장의 취향에 영향받아 초기에는 세계적 브랜드를 확보하기도 했으나 그사이 여러 역경이 있었다.

KWC에도 꾸준히 와인을 참가시켜 거의 모두가 수상했다. 방배동에 새 자리를 마련하고 젊은 스태프들이 제2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 회사의 포트폴리오도 오너의 취향에 영향을 받고 있다.

- 호주의 'Two Rivers'
- 스페인 리베라 델 두에로의 'Loess Wines'
- 독일의 'Stefan B. Röss'
-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Castello di Monsanto'
- 프랑스 론의 'Domaine les Goubert'
- 칠레의 'Villard' 등

● 신동와인 대표 홍기만

88올림픽 이후 창업한 제1세대 수입사의 하나. 브랜드 파워에 있어서 최상위권에 들고 있으며 브랜드 진숙도에 있어서도 최적합도를 보이고 있다. 창업자는 지난날 우리나라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일신방직의 김영호 회장이다. 세계적인 명문인 미국 프랫대학(Pratt Institute, 뉴욕 브루클린)에서 건축 분야의 학업을 마친 김 회장이 1991년 신동와인을 창업했다. 오늘날까지 좋은 회사, 착한 회사의 이미지를 지니고서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KWC에도 수년 전부터 Robert Mondavi와 The Prisoner Winery 등이 적극 참가해 2년 연속적으로 'KWC의 Great Contributor'에 리스트업 되고 있다. W

신동의 브랜드 역시 와인 카너서인 회장의 영향이 듬뿍 배어 있다.

- 프랑스 부르그뉴의 'Romanée-Conti', 론강가의 'E Guigal'
- 미국 캘리포니아의 'Robert Mondavi'
- 포트 와인의 명문 'Taylor',
- 헝가리 토카이의 'Royal Tokaji'
- 스페인의 'Miguel Torres', 'Vega Sicilia'
- 뉴질랜드의 'Villa Maria' 등